조계사 도농상생 활성화 앞장선다

5월 27일 의성군 농산물 유통 견학

2011년부터 각 군과 MOU
법회마다 특색있는 장터 개설
군마다 2억원 이상 수익 창출
신도 "좋은 농산품 접해 만족"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신도대중들이 의성 사과선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 조계사가 도농상생의 새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 함평 국화축제에 이어 다양한 지역과 도농상생을 위한 MOU를 맺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5월 27일 의성 대곡사 성지 순례를 겸해 의성군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마늘종합타운 및 마늘 테마파크를 견학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 포교국장 상범 스님, 템플국장 자윤 스님을 비롯한 신도 8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사와 의성군은 2017년 3월 '도농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성 브랜드쌀(의성眞쌀)을 공양미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초하루법회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6차례 개설해 2억여원의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도 7월, 8월 10월중 3차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지역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할 예정이다.

조계사 신도들의 방문에 의성군 측은 반색을 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입장에서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가 화두"라며 "서울 대표사찰인 조계사가 적극적으로 도농상생에 나서줘 매우 감사하다.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의성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계사의 도농상생 프로젝트는 2011년 함평 국화축제를 통해 시작됐다. 매년 10월 열리는 국향대전을 기해 조계사에서 함평 국화축제를 홍보하고, 이와 함께 사찰에서 함평군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호평을 받았다.

이후 조계사는 주지 지현 스님 부임 이후 이를 더욱 확대해 화천군, 강진군, 의성군, 해남군과 MOU를 체결, 매월 초하루 때마다 돌아가며 지역 농촌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다.

직거래장터는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할 뿐더러 생산지에서 직접 농민들이 가지고 올라오는 품질에 신도들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조계사 신도 김연행 씨는 "법회 후에 사과와 쌀 등을 사간다"며 "좋은 물건을 구해서 좋고 무엇보다 농민들을 돕는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농상생의 장에는 각종 특화작물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암의 무화과 가공품, 대봉감 말랭이, 함평 찹쌀고추장, 어성초 분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들도 나와 인기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예로부터 사찰은 사하의 농어촌과 함께 발전해 왔다.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산중 사찰 외에 도심사찰도 농어촌과의 상생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군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신도들과 시민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을 쉽게 접하는 도농상생의 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고성 산불피해 후원

한달간 모은 6800만원 상당 냉장고 102대 기증



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및 전국 지원은 5월 29일 강원도 고성군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68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02대를 기탁했다.

강릉지원도 4월 16일
옥계면에 후원품 전달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 스님) 및 전국 지원은 5월 29일 강원도 고성군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68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02대를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일 고성 군수는 "고성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은 총 424세대로 이중 전세임대주택을 희망한 82세대가 입주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임시 조립주택은 251세대가 입주를 희망했으며, 6월 중순까지 이재민 가구에 임시 조립주택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조계종의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인 한마음선원측에서 보내주신 정성스런 후원 생필품은 피해 주민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한마음선원 본원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을 대신해 이날 성금을 전달한 한마음선원 강릉지원장 혜인 스님도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신도님들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마련한 이 후원물품이 고성 산불 피해자 주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고성 지역이 원상복귀돼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발원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속초, 강릉, 동해, 인제까지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산림피해 면적이 총 1757ha에 달했다. 산불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 당했으며,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입어, 피해 주민들이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앞서 한마음선원 강릉지원(지원장 혜인)은 4월 16일 산불피해 지역중 하나인 강릉시 옥계면 사무소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가스렌지와 커피 포트 등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김주일 기자

종교계 사회적기업 소셜마켓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종교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한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6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예술공연장서 불교·개신교·가톨릭 등 3대 종교가 함께하는 '2019 자비와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교 9개 기업, 개신교·가톨릭 각각 6개 기업, 진흥원 1개 등 총 22개 기업이 조계사 경내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에 나선다.

또한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3대 종교 성직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서는 각 종교인들이 종교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사회적경제의 혁신적 포용 성장과 가치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2-7009

윤호섭 기자

환경정책·국제교류 기구 '새 출발'

조계종 제8기 환경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촉


5월 30일 위촉된 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불교계 환경정책을 모색하고 사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위원회와 한국불교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국제교류위원회가 제8기를 맞았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제8기 환경위원회와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먼저 환경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6명의 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 위원은 △무관 스님(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백성 스님(사단법인 한국로드킬협회 공동대표) △현종 스님(강릉 현덕사 주지) △제정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인광 스님(월정사 자연명상마을원장) △인경 스님(통도사 교무국장) △서재영 교수(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신준환 교수(동양대 산림비즈니스학과) △오충현 교수(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유정길 운영위원장(불교환경연대)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최송현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김규효 프로듀서(KBS제작본부) △정연만 수석부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다. 임기는 3년.

환경위원회는 위촉식 이후 제1차 회의를 열고 무관 스님을 위원장으로, 이병인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올해 불교환경의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환경연구 실시 등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또한 국제교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쿤상 스님(서울 네팔법당 주지), 담마끼띠 스님(아산 마하위하라센터 주지), 박영환 교수(동국대 서울 중어중문과), 홍희연(국제팀 영어 전문) 씨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1년 5월 29일까지 2년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자수 가사 등 직물문화재 보존 나선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서울공예박물관 MOU 체결

자수 가사, 다라니 주머니 등 직물문화재 보존이 전문화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동식)와 서울시 서울공예박물관(관장 이은주)은 5월 21일 서울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직물문화재 보존처리 및 연구 성과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직물문화재 보존처리를 선도하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2020년 개관예정으로 약 5,000점에 달하는 직물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직물문화재의 보존과 전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 △직물문화재 사진과 연구자료의 공유 △보존처리와 과학적 상태조사 △보존처리를 마친 유물에 대한 전시 △직물문화재 책자 발간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에 지난 2015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처리를 마친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의 보존처리 과정과 연구 성과를 2020년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전시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시작한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의 현장 기록도 빠짐없이 축적해 전시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직물문화재 보존, 전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3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

주 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일 시 2019년 6월 15일 (토) / 9:30 ~ 17:30

장 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3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올해는 대행선사가 탄생하신지 92주년이며, 열반하신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사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선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홍익중생하기 위하여 이제 본 연구원에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 개회식

09:30 ~ 10:00
접수

10:00 ~ 10:30
개회식

2부 | 학술발표 (오전) 10:50 ~ 12:10

사 회 … 이병욱 교수(고려대)

10:50 ~ 11:30
발표 :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논제 :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수행 비교연구
[니까야(Nikāya)와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논평 : 조준호 교수(고려대)

11:30 ~ 12:10
발표 : 이석환 교수(동국대)
논제 : 하쿠인(白隱)과 대행의 대중포교에 관한 연구
논평 : 원영상 교수(원광대)

3부 | 학술발표 (오후) 13:00 ~ 17:30

사 회 … 김호귀 교수(동국대)

13:00 ~ 13:40
발표 : 오지연 교수(동국대)
논제 : 법화천태 교관과 대행선
논평 : 최동순 교수(동국대)

13:40 ~ 14:20
발표 : 박재현 교수(동명대)
논제 : 한국 근대 선불교의 개혁 노선과 깨침의 사회화
논평 : 박인석 교수(동국대)

사 회 … 이상호 박사(서강대)

14:40 ~ 15:20
발표 : 김방룡 교수(충남대)
논제 :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
논평 : 정 도 스님(동국대)

15:20 ~ 16:00
발표 : 오경후 교수(동국대)
논제 : 한국 선종사에서 대행선의 가치
논평 : 정영식 교수(성균관대)

좌 장 … 한상길 교수(동국대)

16:20 ~ 17:30
토론광장 및 마무리